사학 재정

등록금 의존율 낮춰라

— 사학의 재정문제와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I. 서 론

89년 그간의 단절적이고 무계획적인 투쟁을 비판하며 '대학자치협의회 건설'과 '등록금 동결' 을 중심으로 시작된 자주경희의 학원자주화 투쟁(이하 학자투)은 예산결산위원회(前 예편위)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조직화해냈다. 이에 근거하여 예결위에서는 합리적 예산편성을 만들어왔으며 교심위에서는 교양 전공개편이라는 2년간의 지속적인 성과물을 일구어내고 학원자주화의 모범으로 일컬어진다.

이제 조직적으로는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를 건설하여 통일적인 학자투의 수행을 꾀하고 있으며 활기찬 91년 학자투 3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의 학자투는 가시적 성과물로서 '민족통일론'으로 상징되는 진보적 교과목의 개설과 교강사 선임에의 학생의견 반영, 그리고 등록금투쟁을 통한 복지·교육환경개선, 등록금분할납부등을 이루어냈고 학우들의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북돋았다.

그러나 90년말 교수협의회의 조영식총장 재추대 결의는 총장직선 선출이라는 전 경희인의 꿈을 무너뜨렸으며 (사실 90년초의 교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에 달하는 교수들이 총장직선제에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희학원자주화는 그 기틀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대학 기획실장협의회의 등록금 15~20% 결정, 그리고 학생처장회의에서 문교부로의 등록금 결정권 반환 건의등 크나큰 충격을 학생들에게 던져주었으며 대학발전위원회 건설을 통한 교수, 학생, 직원이 주인되는 학원자주화의 새날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91년도 등록금투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학원자주화의 기풍을 세우고 그간의 성과물을 보전하고 보다 근본적인 등록금문제의 해결방안, 그리고 투쟁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II. 본 론

1. 89, 90 우리의 성과물은 무엇인가?

올바른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간 숱한 등록금투쟁(이하 등투)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나열식의 피상적인 평가보다는 그 성과물을 올바로 틀어쥐는 것이 이후 방향을 세우는데 더욱 중요하다 생각되므로 이를 중심에 놓기로 하겠다.

1) 합리적 예산편성의 원칙

합리적 예산편성원칙은 등록금의 근본적 문제점인 교육예산등 국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부재한 상태 속에서 말 그대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나마 우리의 등록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었다.

이에 그간의 예산편성원칙으로 합의된 소중한 성과물들을 짤막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① 총예산 중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자.

현재 우리나라 사학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0%를 넘고 있어 타국(미국 38%, 일본 60%)에 비하여 훨씬 높다.

물가인상률이나 대학의 발전을 고려할때 학교의 총예산은 증가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결코 총예산의 증가를 모두 등록금이 짊어질 수 는 없으며 학교의 발전이 등록금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총예산중에서 인건비의 비율을 줄이자.

현 경희대의 총예산중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액수가 57%를 넘고 있다. 이는 문교부에서조차 50%를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권장하고 있으며, 인건비외의 비용은 학교운영비, 학생경비, 학교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증폭되는 인건비의 인상을 등록금에서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재단전입금등 그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건설비는 등록금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건설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이나 이는 당연히 재단이 책임져야할 부분이며 더우기 그것은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때 당연히 등록금에서 지출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이는 기계기구구입비, 장기차입금 상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2) 복지교육환경의 개선

① 복지회관의 건립

- 92년 1학기 완공을 목표로 하며 90년도에는 허가, 설계, 조감도를 완성한다.

② 기타 교육환경개선사항

정경대증축, 구름다리 건설, 문리대 의자·교단·교탁 교체, 의약관 해부학실습실 개설및 창호공사의 단계적 실시, 사대 실기실습실설치, 음대 음악감상실 보수및 콘서트홀의 단계적 보수, 체대 무용과 강의실보수·마루바닥 공사, 학생식당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

3) 등록금 분할납부제

4)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동률 인상.

5) 계열별차등제를 개선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안을 마련키 위해 노력한다.

2. 90년 예산편성 무엇이 문제였나

위의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것은 전면적 예산편성원칙의 파기와 복지교육환경개선의 불이행이다.

첫째는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단전입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88년 18억, 89년 38억, 90년 26억)

둘째는 경희의료원의 임상교수 인건비의 문제이다. 이는 경희의료원에서 89년 80%, 90년 90%, 91년 100% 전입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0년 50%밖에 들어오지 않아 18억의 수입감소를 낳았다. 이 18억은 작년도(89년) 납입금과 90년 납입금총액의 차이 17억을 상회하는 액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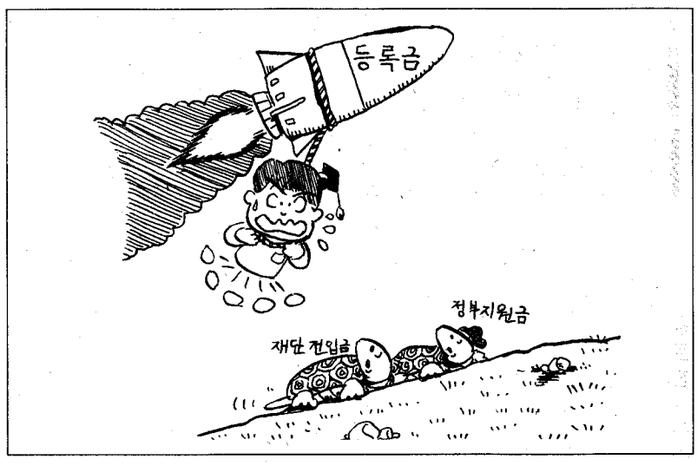
즉 현재의 회계상으로는 이 18억이 들어 왔었다면 90년 등록금은 동결될수도 있었던 것이다. 학교측은 경희의료원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안은 89년 조영식총장과 당시 학생대표들간의 합의사항이었다.

세째는 위에서 보듯이 재단전입금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에서 건설비로의 유용은 7억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총학생회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있다.

네째는 총예산중에서 인건비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88년 57.3%, 89년 55.13%, 90년 57.55%)

다섯째는 복지, 교육환경 개선사항중 정경대증축, 구름다리건설, 의약관 창호공사의 단계적 실시, 복지회관 건설추진, 음대 콘서트홀 보수, 무용과 강의실보수, 사대 실습실 등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90년 합의사항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3. 향후대책

그간 예산협상에 임하는 학교당국의 자세는 제출된 예산자료의 정확성과 세세함에 있어서 타학교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며 특히 90년 합의되기전까지 등록금고지서 발부를 미루었던 합의정신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학교측은 학생측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간 쌓아온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에 학교측에게 충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학교측은 90년 예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극복대한을 제출하는등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40%에 해당되는 임상교수인건비 18억을 속히 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병원측과 학교와의 약속사항이 아니라 총장과 학생과의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90년 무원칙적으로 지출된 건설가계정 6억7천만원을 재단에서 전입하여 91년 등록금책정에 인하요인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복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길 바란다.

둘째는 학교측이 진정 합리적 예산편성과 올바른 예산운영의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예산편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학생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간 학교측은 합리적인 등록금투쟁을 하고자하는 학생들의 자세에 부응하기는 커녕 학생들이 제시한 예산편성원칙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그나마 결산과정에서는 여러 사정들을 들어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측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원칙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재단의 공개이다. 더이상 재단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와 재단의 특수성만을 들어 은폐할 수 없다. 이제 학교는 재단의 실태를 전면공개하고 모든 구성원과 재단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동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학교측은 스스로 자율, 자립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등록금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학교간에 암묵적 합의동맹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문교부에 공권력으로 등록금문제를 해결하라는 자세가 과연 교육기관으로서 할 태도인가? 경희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지금은 91년도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90년 예산편성의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때 91년의 문제는 그에 근거하여 쉽게 풀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근본적 해결방안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그 근본문제는 교육예산에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대정부투쟁의 방안을 내와야 할것이다.

이 글에서는 요즘 많이 제기되고 있는 기부금 입학제도의 문제점을 살피는 것으로 그 해결대안을 대신하고자 한다.

기부금 입학제는 말 그대로 정원외의 학생을 기부금을 받고 입학시켜주고 그 기부금을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부금 입학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계층간 위화감의 심화와 배금주의의 성행, 선발과정에서의 비리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기여는 물질적·금전적 기여뿐 아니라 비물질적·정신적 기여도 포함시키며 그 수입은 장학금과 연구비에만 쓰겠다고 흔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입학제의 본질은 분명 돈으로 교육을 사고파는 것에 다름아니며 그들의 말대로 장학금, 연구비에만 지출하겠다면 과연 현 사학재단의 어려움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의문이다. 결국 모순을 은폐한채 때우기식의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흔히 하는 이야기이나 결국 대학인의 문제는 대학인이 풀어야하며 사학재정의 문제는 그 구성원이 풀어야하는 것이다. 예산의 문제는 학생뿐 아니라 직원, 교수의 인건비에 직결되어 있으며 사학의 문제는 88년도 국공립대 23개대에 80억, 사립대 93개대에 76억의 연구비지원에서 드러나듯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주인된 의식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주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소 광 호
〈 법학·2 〉

90예산 편성, 인상율 비해 비합리적이란 평가
정부지원 확대·효율적인 관리 통해 재정부담 덜어야

歲時鋒

오만방자한 자유의 여신상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소위 무소불위의 시대였다.

식민지문제에 관한한 협상을 떠나서 일단 대포알을 한방 날리기 시작했다.

1, 2차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대는 스스로 자기무덤을 판 국가들에 의해 정리됐다. 그들 국가의 엄청난 책임과 역사의 오점을 남긴채로…

최근 일간지의 외신면을 심심찮게 장식한 미국-이라크 회담이 협상의 가능성만을 시사하면서 독자의 흥미거리 정도로 사건이 축소되고 있다. 당사국에겐 국가의 흥망이나 위신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우리내의 기사 밸류와는 달리 현재 상황은 미국의 '대포한방' 가능성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스스로를 국제분쟁해결기구라 칭하는 UN이 이라크의 침공배경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철수를 주장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원칙아래 분쟁을 해결한다는 UN이 미국의 제의대로 무력사용을 15일로 결의(?)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 시점에서 굳이 협상을 통한다기보다 자국내 군수산업과 80%가 넘는 여론을 반영한 전쟁도발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협상의 조건을 터무니없이 내걸므로써 이라크의 이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사용 시일인 15일 0시만 기다리고 있다. 부시의 초조함이 사진을 통해서도 보여진다. 자국민이 원한다면 인류에게 핵전쟁을 선전포고할 수 밖에 없다는 태도이다.

아메리카니즘의 미국이 내정간섭과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불순국가라는 것은 지난해말 그레그 대사의 망령편지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주한미군소속 한국인 노무자 인건비에 대해 정부가 5천만달러를 지급한 것은 위헌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에 "한·미행정협정(SOFA)이 조만간 타결될 때까지 외무부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강력히 작용해달라"는 명령조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방약무도한 서한에 대해 국회동의를 어물쩡넘기며 지급보증을한 정부는 민족자존심을 도매금에 넘긴듯하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정권유지와 배후에 있는 '형님'을 위해선 민족의 자존심 정도야 사소하다는 듯한 태도다.

더욱 괘씸한 것은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하무인격의 태도이다.

그릇된 자기우월주의와 이를 기반으로한 내정간섭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2백여년의 짧은 역사때문인지, 1·2차 대전후의 도발적인 제국주의 결과를 모르는 것인지 그 고약한 버릇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가까운 기억속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낳은 파렴치한 '자신의 초상'을 떠올릴 수 없었을까. 미국은 역사의 거울이 없는 나라인가 보다.

이라크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부시의 모습과 그레그의 서한이 오만한 '자유의 여신상'과 페르시아만 파병 여군의 사진이 묘하게 오버랩(over lap)되면서 불쾌감을 더해준다.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 미군 용역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을 찾아

전국외국기관 노동조합연맹 신원노동조합의 파업 77일째를 맞아 본교생 40여명과 서총련산하 5개대 40여명이 지난 12월16일 지지방문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노·학연대의 틀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지지방문투쟁은 소모임별로 파업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반미의식과 높은 투쟁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파업은 '한국경보'라는 악덕기업의 덤핑입찰로 지난 3년간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오던 신원노조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1일을 기해 전국9개지역 주한미군 경비노동자들과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어 12월15일에는 제2차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조합원들은 "이전까지 미국에 대해 별 악의가 없었어요. 또 50세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고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미군이 이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하며 파업노동자의 적이 더이상 용역업자가 아닌 주한미군임을 밝혔다.

파업이 발생하자 지난 11월19, 20일 미군측은 파업농성장을 탱크로 밀어버리고, 조합원부인을 헌병차로 치는 등 폭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지지방문을 마친 학생들은 "주한미군의 한국땅 주둔으로 빚어지는 문제의 일각을 폭로함으로써 반미투쟁의 근거지를 확보하고 반미의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그 투쟁의 의의를 밝혔다.

◇ 지난 12월16일 파업노동자와 학생들은 주한미군 항공대 정문앞 농성장에서 노학연대를 위한 지지방문 집회를 가졌다.

〈 이지환 記者 〉

西紀 1990年(檀紀 4323年) 9月 19日 水曜日 (日刊)

朝鮮日報

『대학생 협동조합』 본격가동

"学生도 소비자" 30개校 조직

첫행사로 컴퓨터 할인판매…美-日선 보편화

국내서도 대학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학생협동조합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학생협은 또다른 소비층인 대학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과 기업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위한 소비조합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있다.

国內선 87년에 시작

통상 유니콥(University Cooperative Society)이라고 불리는 대학생협이 우리나라에 처음 조직된것은 지난87년. 대학신문과 학생회등에 간여하여 대학사회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洪南錫씨(40·우남에이전시대표)등 38명이 주축이됐다.

한국유니콥은 그간 준비과정을 거쳐 대학로에 한국유니콥센터를 마련하고 첫번째 행사로 컴퓨터할인판매를 실시했다.

유니콥운동은 미국에서는 하버드·MIT大등을 중심으로 1923년에 시작됐다. 이후 각국에 퍼져 일본에는 지난 46년 동경대서 시작하여 일본소비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발전한 일본대학생협이 조직됐으며,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도 같은 조직이 구성돼 있다.

「취업가이드」 발행도

洪南錫위원장은 "합리적인 소비조합 운동을통해 빈부의 해소도 가능하다"며 이운동이 대학에 퍼져 하나의 흐름을 이룩하기를 희망했다.

그간 대학생을위한 취업가이드, 대학종합전문지인 한국대학신보를 발행해온 한국유니콥은 현재 30개교에 조직된 유니콥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沈龍律기자〉

◇한국유니콥센터가 개관기념으로 마련한 컴퓨터할인판매장 모습.

컴퓨터·카메라·오디오 판매공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여 온 유니콥추진위원회가 지난9월 유니콥센터 개관행사로 개최한 「컴퓨터 한마당」에 보내준 대학인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에는 한국대학신보 후원으로 대입합격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판사업 「대입합격자 축하상품」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 업 명 : 대입합격자 축하상품 한마당
- ●참여업체 : 삼성전자, 대우통신, 삼양광학, 아남정밀, 현대교역, 언더우드
- ●대 상 : 대입합격자 및 교수, 직원, 대학(원)생
- ●판매기종 : 컴퓨터, 카메라 및 악세서리, 오디오, 의류
- ●행사기간 : 1990. 12. 22(토) ~1991. 2. 9(토) (50일간)
- ●행사장소 : 유니콥센터 이벤트홀(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뒷편)
- ●구입상담 : 유니콥추진위원회 (02) 278 - 1100
  유니콥센터 (02) 764 - 9200/2
- ●기술상담 : 삼성전자 (02) 751 - 6542 전시매장 (02) 697 - 3999
  대우통신 (02) 771 - 35 (교 5555)
  삼양광학 (02) 763 - 4855
  아남정밀 (02) 701 - 3070
  현대교역 (02) 744 - 4767/8
  언더우드 (02) 780 - 1437/8

■주최 : 유니콥추진위원회 ■후원 : 한국대학신보

※ 본 행사에서는 대학인에 한하여 판매하므로 교직원, 학생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학생증, 합격통지서 사본)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